

장성 '100원 행복택시' 대폭 확대

버스정류장~마을회관 거리 축소
내달부터 52개 마을로 지원 늘려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
노약자·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칩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오는 7월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간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월별로 4매씩 지급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한다.
매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용 주민은 물론,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왔던 택시 사업자들도 한결 편리해진다.
장성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행복택시 전용 카드로 지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나주시가 주말 전통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랑 놀자'를 오는 11일 나주향교에서 개최한다. /나주시 제공

주말 가족 나들이는 '향교와 놀자'

나주, 11일 다례체험 등 진행

나주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전통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랑 놀자'를 11일 나주향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향교랑 놀자는 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2022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 예절과 문화, 다양한 놀이 체험 등을 제공한다. 이번 달 프로그램은 나주향교 동익랑에서 전통 차 예절과 시음 방법 등을 배우는 '다례 체험'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3회차

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 공식 SNS에서 '구글 폼'을 작성해 사전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5가족씩 오후 1시30분, 2시 30분, 3시 30분에 각각 시작한다.
다례체험 외에도 향교 내부에서는 식빵피자 등을 만들 수 있는 주전부리코너(참가비 1,000원)와 전래놀이, 이야기 할머니, 향교해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조충권 기자



영광법성포단오제 기간에 열린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모습. /영광군 제공

영광 법성포단오제 방문객 11만명 다녀갔다

씨름대회·민속놀이 등 행사 다채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관 운영

·선유놀이·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신제·당산제·무속수륙제 등 제전·의식, 씨름대회·민속놀이(투호,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창포 머리감기·그네뛰기 등 전통적으로 단오절에 행해진 풍속과 씨름대치기·단오부채 만들기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잘보리·모시잎송편·굴비·천일염 특산물 홍보 및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관도 운영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이해 KBS와 함께하는 특별행사인 국악한마당, 전국 노래자랑 개최와 한눈에 보는 법성포단오제 식전공연, KH그룹 IHQ 가요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단오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양해일 법성포단오제 보존회장은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단오제는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영광군은 500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관광객들의 호평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1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

장성, 6월 한 달 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주요 정책·예산사업 담당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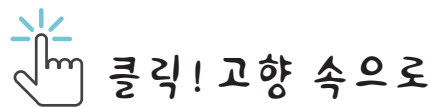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장성군이 6월 한 달 동안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상황,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

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기여한 정책 ▲기타 군정 주요 현안사항이다. 단순 민원이나 이미 공개된 사안,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장성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6월 중 군청 기획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장성=전일용 기자

함평, 귀농귀촌 멘토-멘티 사전교육

함평군이 최근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에서 입교생과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멘토·멘티 매칭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역정보, 인적교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팀의 멘토·멘티 그룹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선도농업인)는 멘티(입교생)에게 귀농준비, 귀농생활, 품목기술 등 귀농귀촌 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회차 당 10만원의 멘토수당을 지원한다.
/함평=윤예중 기자



화순향토음식학교, 자연요리반 교육 '호응'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향토음식학교의 '자연요리반 교육'이 최근 수강생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화순군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주 2회씩 자연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자연요리는 지역 농산물과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고 불 사용을 최소화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연식이다.

수강생들은 2주간 표고두부탕수, 봄나물모듬잡채, 뽕잎옹심이미역국, 오이백김치, 잣소스덕터샐러드 5가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한 수강생은 "육류, 해산물을 쓰지 않는 요리를 배워본 것은 처음이다"며 "누구나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배운 알찬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 제15기 친환경농업대학 개강

나주시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대학 '청년창업학과'에 참여한 수강생 21명과 개강식을 갖고 수강생 간 오리엔테이션 및 첫 학과 수업을 실시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품목별 재배기술', '유통전망', '경영요

령' 등 영농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으로 이뤄진다.
이번 15기 대학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창업학과'와 과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수전정학과'를 개설, 운영한다.
오는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농업인 교육관 및 현장에서 총 13회차로 진행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 어족자원 회복 대하 치어 방류

함평군이 어족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류 수감소를 막기 위해 전염병 검사를 마친 어린 대하 213만 마리를 함평만에 방류했다.
대하는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함평만은 어류 서식에 좋은 조건을 갖추

고 있어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치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일정기간 포획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6월 중 어린 감성돔 2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